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치료중에 발생한 면역용혈성빈혈과 황반앞출혈 1예

가톨릭 의과대학교 내과학교실, 안과학 교실*

박찬권 · 이재학 · 손혜숙 · 박용완 · 김진수 · 김형근 · 김창욱 · 조영석 · 김성수 · 채현석 · 이창돈 · 박영훈*

배경 : 만성 C형간염의 절대표준치료는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이다. 이 병합요법은 현저하게 지속바이러스 반응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치료중에 근육통, 두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것으로 리바비린은 적혈구에 직접독성작용을 유발하여 용혈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치료중에 발생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 유발성 면역용혈성빈혈과 병합요법에 황반앞 출혈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45세 남자 환자로 만성 C형간염으로 진단되었다. HCV RNA는 1.57×10^6 IU/mL 이었으며 genotype은 1b 보어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 180 ug/week 와 리바비린 1000 mg/day 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후 12주에 조기바이러스반응은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CV RNA <600 IU/mL). 치료 6개월 동안 특별한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 이후 어지러움증, 황달, 왼쪽눈 시야결손(중심암점)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에서 리바비린을 중단하였지만 혈색소가 4.3 g/dL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총 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이 각각 4.29와 1.24 mg/dL로 간접고빌리루빈혈증을 보였다. 빈혈의 원인검사상 직접 및 간접 콕스검사에서 양성, ANA 1/1280, 말초혈액도말 검사에서 적혈구응집반응이 보였다. 우리는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을 중단하고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에 의한 면역용혈성빈혈 진단하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스테로이드 치료 1개월 이후 빈혈은 호전되었고 황반 앞출혈은 6개월 뒤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결론 :**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합요법 치료 중에 발생한 빈혈은 항상 리바비린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면역용혈성빈혈은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가 본 증례에서는 빈혈 회복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행려환자에서 만성간질환의 임상 양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내과, 부설연구소

*권규흠 · 김장언 · 오지민 · 최진호 · 이계희

배경/목적 : 행려환자는 부적절한 영양상태, 불량한 위생환경, 과도한 음주 또는 각종 약물의 남용 등의 환경에 있지만 사회 조직에서 방치되어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어렵다. 특히 많은 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 간질환은 대부분 진행성의 질환으로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보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원을 방문하여 만성 간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요하였던 무연고 행려환자의 임상상을 확인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행려 환자 중 만성 간질환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를 요하였던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성 간질환의 상태, 동반된 합병증 등 임상 양상과 발병 원인, 입원을 요한 직접적인 요인, 악화 요인 등을 확인하고 각 인자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간경변 및 그 합병증이 가장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알코올이 약 70%로 가장 많았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20%를 차지하였으며 직접적인 악화 요인도 알코올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고찰 : 일반인에 비해 행려 환자의 경우 알코올 섭취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와 관련된 만성 간질환 및 기존 질환의 급성 악화가 많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병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 행려 환자의 경우 불규칙한 식사와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 이외에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의 악화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따라서 이를 토대로 행려 환자들의 생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사회 복지 차원의 지원이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인적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위하여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